

글로벌 사회에서의 자국어 학습

이시가와 데루코
효고현립 니시노미야 고우후고등학교

I. 문명의 소개 - 자국어 학습의 의미는 무엇인가

글로벌화가 진전되고 국경이 사라지고 있는 오늘날 자국사를 배우는 의미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일까? 국경 안에 머물렀던 역사상은 일신되고 있고, 「자국사」, 「타국사」라는 구분에 의미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생겨난다. 현재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서 일본사 A·B의 경우, 내용면에서 「근·현대의 학습」이 한층 강조되고 있는 것이나, 「과목 간의 관계」를 중시하게 된 것, 방법 면에서 「문서 활용 능력」, 「고찰하고 표현하는 학습」이 중시되고 있는 것은 질문에 대한 대답의 하나일 것이다.¹⁾

한편, 학생들은 국사를 배우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표 1>은 발표자가 고등학교 3학년 일본사의 마지막 수업에서 실시한 「자국사를 학습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학생들 24명의 기술을 유형화 한 것이다.

<표 1> 자국사를 배우는 의미

<p>【태도 형성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의 국가가 얼마나 성장을 이루었는지, 얼마나 쇠퇴를 경험했는지를 직접 알아으로써 애국주의도 높아지고, 타국과 좋은 의미에서의 경쟁심이 생긴다고 생각한다. · 일본인으로서의 자각과 같은 것을 느끼는 것은 아냐고 생각한다. 또한, 일본의 풍습과 문화가 흥미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으로 자국사를 배우는 것은 고래의 일본 문화 등을 뿌리 내리게 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

1)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의 「개정의 취지」에서는 개성의 구체적 사항으로 日本史A, 日本史B는 각각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일본사A, B에 공통되는 사항은 「자료 활용 능력」 「세계사·지리·일본사의 관련 중시」 「과제(주제)의 추구」이다.

<p>「일본사A」에 대해서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고, 지리적 조건이나 세계사와 관련시키면서, 과제를 추구하는 학습을 중시하고, 우리나라 근현대와 역사나 현대사회의 성립에 대해 이해시켜, 역사적 사고력을 기르도록 한다.</p>	<p>「일본사B」에 대해서는 다양한 자료의 활용을 중시하고, 시간적 조건이나 세계사와 관련시키면서, 적절한 주제를 설정해서 추구하는 학습을 통해 우리나라 역사의 진계를 종합적으로 이해시키고 역사적 사고력을 기르는 것을 한층 중시한다.</p>
---	--

또한, 지도요령해설의 「개정의 요점」에서는 일본사A, B는 각각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공통 사항은 「고찰하고 표현하는 학습」 「(현)대 학습」의 중시이다.

<p>일본사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를 고찰하고 표현하는 학습의 중시 · 근대의 대권(大權)적 학습의 중시와 항목의 재구성 	<p>일본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를 고찰하고 표현하는 학습의 중시 · 근현대 학습의 중시와 항목의 재구성 · 역사의 종합적인 고찰의 중시
--	---

2) 이 설문은 2012년 1월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서 실시했다. 출중한 학생은 일본사B를 2학년에서 2단위, 3학년에서 3단위 이수하고 있다. 세계사에 대해서는 세계사A(2단위)를 3학년에서 이수하고 있다.

- 1 -

<p>간한다.</p> <p>【공간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옛날 사람은 위대했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자국사를 배우으로써 그 시대에 지혜를 발휘해 온 사람들의 생각을 알고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p>【교양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살고 있는 국가인데도 그 나라의 것을 아무 것도 모른다고 하면 역시 곤란하고, 상식으로 알아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반성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젊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전쟁과 식민지 문제 등 끔찍한 일이 다시 반복 될 수 있도록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부할 필요가 있다. <p>【미래지향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어느 사이렌가 갖고 있었던 그 국가의 마음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왔는지, 지금 우리들의 생활이 과거 사람들의 어떤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두어야 우리들은 앞으로의 자국의 모습을 생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소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자국사를 계속 배워 온 결과,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태도 형성형】** **【공간형】** 이었다. 또한, **【교양형】** 의 학생은 사회의 글로벌화를 의식하고 있다. **【반성형】** 의 학생 대부분은 근대사를 예로 든다. 이것은 고등학생이 되어 처음으로 근대사를 상세하게 배우게 되는 학생의 실태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 결과 **【미래지향형】** 으로 생각을 발전시켜 가는 학생도 보였다. 많은 학생들은 일본사 학습을 국민의 아이덴티티 형성과 결부시키고 있다. 한편으로 자국어 학습의 의미를 타국과의 관계나 글로벌화의 문맥에서 파악하고 있는 학생도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II. 자국어 학습의 두 가지 방향성

1. 「강제적 강화」하는 자국어 학습

「강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입장은 글로벌화, 보더리스(borderless)화를 국민국가 해체의 위기로 파악해, 일본 사회의 주된 구성원인 일본 국민에 대해 「일본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자각시키는 것이 자국어 학습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을 구현화한 것이 일본사의 필수화 움직임이다. 가나가와현(神奈川県)에서는 현립 고등학교 등의 2012년도 입학생부터 「일본사A」, 「일본사B」, 현의 독자적 과목인 「향토사 가나가와」, 「근현대와 가나가와」의 4 과목 중에서 1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는 일본사 필수화를 실시하고 있다.²⁾ 또한 도쿄도(東京都)에서는 「일본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기르기 위해 고교생에게 일본사를 계속해서 배우게 하는 것이 중요 (중학교 단계에서는 심화된 역사 학습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근거해 도입 고등학교 등에서 2011년부터 「일본사A」, 「일본사B」, 도의 독자적인 일본사 과목인 「에도에서 도쿄에」의 3 과목 중 1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는 일본사 필수화를 실시하고 있다.³⁾

3) 神奈川県教育委員会 <http://www.pref.kanagawa.jp/cnt/1360678/>
 4) 京都教育委員会 「都立高等学校における日本史必修化の進め方について」

학습지도요령에서는 「전통이나 문화에 관한 교육의 충실」도 명문화되어 있다. 전통·문화(和文化的)의 존중도 「일본인으로서의 자각과 자부심」을 기르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도쿄도에서는 「일본의 전통·문화 추진사업」⁵⁾이, 효고현에서는 「일본의 문화 추진사업」⁶⁾이 시작되어 일본의 전통이나 문화에 관한 수업이 고등학교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화문화 교육」을 추진하는 단계도 2005년에 설립되어 있다.⁷⁾

2. 「경계를 설정」하는 자국사 학습

글로벌 사회·보더리스 사회에 대응하는 또 다른 하나의 자국사 학습은 「경계를 설정」하려고 하는 입장이다. 설정하려고 하는 「경계」는 공간적 경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 경계, 정신적 경계 등도 포함한다. 일본의 각 시대에서 공간적인 경계를 초월한 상호작용이나 시간적인 경계를 초월한 공식적인 보편성을 탐구하는 것을 지향한다.

역사 학습의 목적은 과거의 사건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수단으로 해서 「사회를 아는」 것이다. 자신이 생활하는 사회를 대상화하고, 그 본질이나 구조, 메커니즘을 아는 것에 의해 사회권, 가치관을 철저히 하게 되고 사회 인식은 비약적으로 성장한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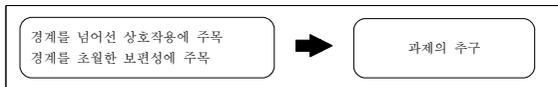
「경계를 설정하는」 입장은 종래의 통사 중심주의, 자국사 중심주의의 일본사 학습으로부터 탈각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 수업은 통사에 의해 구성된 「일본사」의 교과서를 이용하기 때문에, 현행의 학습지도요령 틀 내에서 실현을 모색하게 된다. 거기서 경계를 설정하는 상호작용이나 경계를 초월한 보편성을 배우기 위해 「과제의 탐구」를 각 단원에 도입한 것이다.

이상, 글로벌 사회·보더리스 사회에 대응하는 자국사 학습의 두 가지 방향성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아래 <그림 1>과 <그림 2>이다.



<그림 1> 경계를 강화

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0/02/DATA/20k2q200.pdf, 東京都教育委員会, 「江戸から東京へ」テキスト(教科書)について」, http://www.kyokku.metro.tokyo.jp/buka/shidou/nihonshi.htm
 5) 東京都の「伝統・文化理解教育推進事業について」, http://www.kyokku.metro.tokyo.jp/buka/shidou/dentou_jap.htm
 6) 「日本の伝統・文化推進事業」, http://www.hyogo-c.ed.jp/~koko-bo/nihonshunka/nb-keil.pdf
 7) 和文化教育学会 http://30.pro.tok2.com/~wabunka/index.html
 8) 森分孝治, 「市民的資質育成における社会科教育—合理的意思決定—」, 社会系教科教育学会「社会系教科教育研究」第13号, 2001, p.48.



<그림 2> 경계를 설정

Ⅲ. 「국민」의식의 형성을 시점으로 한 일본사 학습

1. 그 의의

앞에 제시한 「경계를 설정하기」 위한 탐구 학습으로 「국민」의식의 형성을 도입한 일본사의 근대사 커리큘럼을 개발했다.

글로벌화하는 현대사회에서는 국가의 경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으로서의 내셔널·아이덴티티가 요구되게 되지만, 국민의식의 강화는 국민 통합을 촉진함과 동시에, 국가 간의 대립을 선동하는 것도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국민의식은 언제, 어떻게 해서 생성했는가, 그 의미는 시대와 함께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왜 지금 우리들의 마음을 동요시키기를 탐구하는 것에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첫 번째로 학문적 의의다. 「국민」이 근대 국가의 성립과 함께 탄생한 개념인 것은 사회학이나 역사학에서는 공유된 지식이다. 과거에서의 「국민」 형성 과정에 대해 배우는 것은 「근대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시대에 근거가 되는 물음에도 다가갈 수 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의의다. 유토피아에서의 국가 간 메달 획득 경쟁이나 일본 경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영토 문제를 둘러싼 국민 감정의 대립과 같은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 현상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관점을 가질 수가 있다.

세 번째로는 학생에 대한 의의다. 일상적 감각인 자신의 「국민」의식을 되돌아보으로써,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본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들과 공생하는 미래의 일본 사회 모습을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동기 부여가 된다.

2. 커리큘럼 구성 원칙

<표 2>는 「국민」의식의 형성을 시점으로 한 중학교 사회와 근현대사 커리큘럼의 전체 계획을 제시한 것이다. 밑줄을 그은 소단원에는 「국민」의식의 형성에 관한 탐구 학습을 도입하였다.

〈표 2〉 「국민」 의식의 형성을 축으로 한 근현대사 커리큘럼

제 1 단원 일본의 근대화 소단원 1 구미의 발전과 아시아의 식민지화 소단원 2 근세에서 근대로 소단원 3 근대국가로의 발전 소단원 4 국민이 없는 일본 소단원 5 자유민권운동과 국회 개설 소단원 6 청일 · 러일전쟁과 동아시아의 동향 소단원 7 「국민」의 탄생 소단원 8 근대 일본의 사회와 문화	제 2 단원 2차세계의 세계대전과 일본 소단원 1 제1차 세계대전과 전후의 세계 소단원 2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시대 소단원 3 세계 공황과 일본 소단원 4 중국과의 전면 전쟁 소단원 5 보다 나은 「국민」을 지향해 소단원 6 제2차 세계대전과 일본 제 3 단원 새로운 일본과 세계 소단원 1 평화와 민주화로의 움직임 소단원 2 일본은 정말 독립한 것인가 소단원 3 국제화하는 세계와 일본
--	--

커리큘럼의 첫 번째 구성 원리는 교과서에 기술되어진 통사를 기본으로 하면서, 각 단원에 「국민」 의식의 형성에 관련된 탐구 학습을 둔다는 것이다. 통사 학습에 대한 비판은 존재하지만, 그것은 사건사로서 역사를 서술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어떤 시점을 갖고 시대를 보는 경우, 오히려 통사 쪽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통사 학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사실도 존재한다.

두 번째 원리는 역사는 해석이며 복수의 역사 해석이 성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국민」이라는 용어라도 문맥마다 그 의미는 다양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국민」 의식의 형성에 관련된 다양한 역사 사상이나 사람들의 행동, 심정의 분석을 반복해 학습한다.

세 번째 원리는 「국민」을 시점으로 한 탐구 학습을 반복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자국사를 배우는 의미를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학교에서의 통사 학습 그 자체가 「국민」의 이야기(내셔널·히스토리)를 공유하는 장치이며, 「국민」 형성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을 가르치는 쪽이 자각하고 학생들에게 직접 계기함으로써, 커리큘럼이 가질 수밖에 없는 사상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교사 개인의 가치 주입이 되지 않는 것을 다스나마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3. 단원 구성 원칙

다음의 〈표 3〉은 각 단원에서 주제 학습의 학습 과제를 정리한 것이다.

〈표 3〉 각 단원에서 탐구 학습—「국민」 의식의 연구—

단원명	탐구학습 (소단원)	학습과제	국민 의식의 상태
제 1 단원 일본의 근대화	소단원 4 「국민」이 없는 일본	· 후쿠자와 유키치는 왜 「정부는 있어도 국민이 없다」고 말했는가? · 천황의 묘사 방법에는 어떤 변화가 보이는가?	결여 창출

		· 문목 차림의 메이지 천황의 그림이나 사진은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었는가?	
	소단원 7 「국민」의 탄생	· 왜 신문은 전쟁 보도에 주력하였는가? · 왜 전쟁에 간 사람들의 현창비(顯彰費)가 각지에 세워진 것인가?	자각 고양
제 2 단원 2차세계의 세계대전과 일본	소단원 5 보다 나은 「국민」을 지향해	· 왜 타이완의 소년이 죽기 직전에 「기미가요」를 불렀는가? · 왜 「기미가요」 소년의 이야기는 교과서에 실렸는가? · 왜 여성들은 전쟁에 자발적으로 협력했는가? · 순종적이고 잔혹한 행사를 만드는 데에 효과적인 교육은 어떤 것이었는가?	내면화
제 3 단원 새로운 일본과 세계	소단원 2 일본은 정말 독립한 것인가	· 왜 강화조약이 발표해 「독립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41% 밖에 없었는가? · 왜 오키나와의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사투리를 그만두고 표준어를 말하도록 지도했는가? · 왜 본토의 사람은 「오키나와인은 일본어도 말할 수 없네요」라고 말했는가?	각성 포섭 배제

단원 구성의 첫 번째 원리는 「국민」 의식의 연구라고 할 수 있는 4개의 탐구 학습을 설정하고 「국민」 의식의 다양한 모습을 탐구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원리는 탐구 학습은 단원의 종결부에 두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역사 사상(事象)을 배운 후에 설정한다는 것이다.

제 1 단원의 소단원 4에서는 막말의 페리 내항 시의 막부나 민의 건박한 대응과 구경을 위해 작은 배로 모여든 시민의 호기심을 비교하고, 민중이었던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가 “정부는 있어도 국민이 없다”고 말한 것은 왜인가를 생각하게 해, 메이지 시대의 초기에는 국민이란 의식이 본래 결여되어 있었던 것, 반면에 근대적인 국가 형성에는 국민의 존재가 불가결했기 때문에 신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국민을 창출하고 남세 · 병역 · 교육 등을 국민의 의무로 부담시키려고 했던 것, 그 때에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천황상(皇)이 수행한 역할에 대해 탐구한다.

마찬가지로 제 1 단원의 소단원 7에서는 청일전쟁 · 러일전쟁이란 두 차례의 대외 전쟁 과정에서 국민으로서의 자각이 생겨나고, 신문이 천황 기사를 다루어 기계화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일체감과 고양감을 갖기에 이른 것에서 미디어가 국민 의식의 형성에 큰 역할을 수행한 것을 깨닫게 하고자 한다. 또한, 전국 각지에 남아 있는 현창비를 대상으로 해, 전쟁을 국민의 공통 역사로서 사람들의 기억에 남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을 탐구한다.

제 2 단원의 소단원 5에서는 왜 식민지 타이완의 소년이 기미가요를 노래하면서 죽은 이야기가 「내지」와 「외지」의 소학교 교과서에 게재되었는가, 왜 여성들은 전쟁에 협력했는가를 생각하고, 식민지의 「일본인」, 여성인 「일본인」이 사회적인 승인을 얻기 위해 자진하여 모병적인 국민이 되려 했다고 하는 내면화된 국민 의식에 대해 탐구한다.

제 3 단원의 소단원 2에서는 점령기와 독립의 시대를 대상으로 해, 전쟁에 패하고 점령되어 독립을 상실한 일본인이 평화를 추구는 국민으로 각성한 것, 패전 후 구식직업의 사람들은 일본 국민이 아니게 되었지만, 반면에 독립 후에도 점령이 계속된 오키나와나 오키나와인의 사람들은 국민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 학습의 정리로 생각하게 한다. 국민의 범위는 항상 포섭과 배제에 의해 이동하고 있는 것에서 국민이란 누구인가를 생각하도록 하고자 한다.

4. 수업 「『국민』역 탐방」

① 본시의 목표

· 미디어가 전한 전쟁의 상세한 내용을 알게 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자각이 생겨나고, 기념비나 기념 식수가 「국민」 공통의 기억을 형성한 것을 안다.

② 본시의 학습 과정

	발문·지시	학습과정	교재	발전·습득시키고 싶은 지식
도입	· 문명개화에서 학습한 후쿠자와 유키치를 기억하고 있지요. 유키치가 쓴 『문명의 개략』 일부를 읽습니다. 유키치가 가장 얘기하고 싶었던 곳에 밑줄을 치세요. · 어디에 밑줄을 쳤나요? ○유키치는 메이지 초기 무렵의 일본인에게 「국민」의 의식이 없었던 것을 한탄하고 있네요.	T:지시한다. S:자료를 읽는다. 자료에 밑줄을 친다. T:발문한다. S:답한다. T:확인한다.	①	○「일본에는 정부는 있어도 국민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전개 I	· 청일전쟁이나 러일전쟁은 다양한 미디어에 의해 전해졌습니다. · 자료2를 읽으세요.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T:설명한다. T:발문한다. S:답한다.	②	· 신문은 호의를 발행하여 전쟁의 모습을 전했다. ○사람들은 다투어 신문을 읽고 전쟁의 모습을 알려고 하고 있었다.
	· 대형 신문사 이외에도 다양한 신문이 전쟁을 전했다. 자료3의 신문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T:발문한다. S:답한다.	③	· 컬러이다. · 삽화가 크다. ○알기 쉬운 신문이다.
	· 자료3을 보세요. 아시아 측은 유명한 화가입니다만, 중군하여 전쟁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습니까.	T:지시한다. 설명한다.	④	· 현장감이 넘치는 그림이 많이 그려져, 전쟁 모습이 시각적으로 전해지게 되었다.
	· 자료4를 보세요. 병사가 쓴 러일전쟁의 체험기입니다.	T:지시한다. 설명한다.	⑤	· 체험기나 편지, 일기는 신문과는 다른 생생한 개인적인 전쟁 체험을 전했다.
	· 많은 사람이 신문을 읽거나, 병사가 일거나 편지에 체험을 기록해 남긴 배경에는 교육의 보급이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취학률의 그래프를 다시 한 번 확인 합시다.	T:지시한다. S:확인한다.	⑥	○러일전쟁 무렵에 소학교의 취학률은 남녀 모두 95%를 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읽고 쓸 수 있었다.
	○다양한 미디어가 전한 전쟁을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T:발문한다. S:WS에 기입		○가족이나 친구가 싸우는 전쟁의 모습을 필사적으로 알려고 했

- 7 -

	발문·지시	학습과정	교재	발전·습득시키고 싶은 지식
전개 II	한다.			다. ○전쟁을 가깝게 느꼈다. ○승부에 신경이 쓰였다.
	· 전후, 전쟁의 기념비가 전국 각지에 만들어졌다.	T:설명한다.		
	· 이것은 와카야마시에 있는 청정기념표 비입니다. 청일전쟁 다음해에 세워졌습니다.	T:설명한다.	⑦	
	· 이것은 히로시마시의 것입니다. 청일전쟁의 개신비로 1896년에 세워졌습니다만, 전후 「평화의 탑」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T:설명한다.	⑧	
	· 이것은 센다이시의 소총비입니다. 1902년에 세워졌습니다. 위의 소리가 조각은 동일한 대지건으로 떨어져버렸습니다.	T:설명한다.	⑨	
	· 이들 기념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T:발문한다. S:답한다.	⑩	· 크다. 눈에 띈다. 쳐다본다. · 전후에 세워지고 있다.
· 사실은 우리 교장에도 「메이지 37, 8년의 역(役) 개신 기념수」라는 비가 있습니다. ○전쟁의 기념비나 식수는 보는 사람의 기분이나 생각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T:설명한다. T:발문한다. S:WS에 기입한다.		○일본은 강하다고 생각했다.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의 일을 잊고 싶지 않다. · 평화를 원한다. 등.	
○청일전쟁이나 러일전쟁은 유키치 시대 사람들의 의식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T:발문한다. S:WS에 기입한다.		· 전쟁의 중매에 신경을 쓰게 되었다. · 전쟁은 국민 전체에 관계가 있다고 의식이 변했다. · 국민이 일체가 되는 의식을 고 양시켰다. 등.	

- 교재 ①후쿠자와 유키치 『문명의 개략』의 현대어역 (WS=Work Sheet 자료)
 ②청일전쟁 무렵의 긴자 (WS 자료2 오카모토 기도우(岡本綺堂)「사십년전」, PP 슬라이드)
 ③신문보도(WS 자료4 「청일전쟁화보」, PP 슬라이드)
 ④유명 화가도 중군했다(WS 자료3 아시아 측(淺井忠)「청국·금주성의 싸움」, PP 슬라이드)
 ⑤청일전쟁의 체험기(WS 자료5, PP 슬라이드)
 ⑥소학교의 취학률 변화(교과서 p.164)
 ⑦와카야마시 청정(征清)기념표비(WS 자료6, PP 슬라이드)
 ⑧히로시마시 평화의 탑(청일전쟁 개신비) (WS 자료7, PP 슬라이드)
 ⑨센다이시 청일전쟁 소총비(昭忠碑)(WS 자료8, PP 슬라이드)
 ⑩청일전쟁 개신 기념식수의 식비(교비)서 하가사나다구(東照宮) 오우후루메신사(大日靈女神廟) 경

- 8 -

IV. 본 연구의 의의와 과제

1. 「국민」이란 경계를 넘어선 보편적인 개념의 탐구

제한한 근현대사 커리큘럼은 근현대사에서 탐구 과제를 설정하고, 「국민」의 기원과 「국민」의 의식의 다양한 모습을 학습하는 것에 중심을 둔 것이었다. 그것은 학생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국민」의식을 문제시하는 것이고, 경계를 넘어선 보편적인 개념의 탐구는 영토 문제가 표면화하고 있는 지금, 노골화되고 있는 「국민」의식을 냉정하게 분석할 수 있게 할 것이다.

2. 전근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글로벌 사회의 자국사 학습에서 전근대는 어떤 탐구 과제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경계를 초월한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의 사회과 역사적 분야에서는 목표의 하나로 “우리나라와 세계의 역사나 문화가 상호 깊게 관련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게 함과 동시에, 타 민족의 문화, 생활 등에 관심을 갖게 해, 국제 협조의 정신을 기른다”는 것을 들고 있다. 또한, 고등학교의 「일본사A」의 과목 성격으로 “우리나라의 역사 전개에 대해, 특히 근대 사회가 성립하고 발전하는 과정에 중점을 두고 고찰하고, 세계사적인 시야에서 이해시킨다”고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일본사B」에서도 “우리나라의 역사 전개에 대해 세계사적 시야에서 각 시대의 특색 및 변천을 종합적으로 고찰시키는” 것, “학습 대상을 좁은 의미의 자국사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대에서 국제 환경과의 관련을 시야에 넣어 공간적인 관련이나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생각하는 학습을 중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효고현에서는 고등학교에서 일본사는 필수화되어 있지 않지만, 세계에서 일본이나 효고현의 역사나 문화를 관련지어 배울 기회를 주기 위해 부록본 『세계와 일본』을 작성해, 2014년도부터 세계사 수업 중에 활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경계를 초월한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국가나 현의 레벨에서도 의식되고 있고, 교과서나 부록본에서도 탐구 과제가 설정되어 있다.

한편, 「경계를 넘어선 보편성」에 주목한 자국사 학습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발표자가 과거에 개발·실현한 고교 일본사의 단원 「중세의 왕은 누구인가」는 천황(조정)이나 쇼군(막부)이라는 일본사 특유의 역사 용어에서 일단 벗어나, 「왕권론」을 도입함으로써 세계사적인 시좌에서 일본의 역사를 고쳐 보려고 하는 것이었다.⁹⁾ 이와 같이 일본 역사의 개별 구체적인 사상이나 용어에서 벗어나, 「왕권」, 「국민」이란 역사에서 중요한 개념을 통사 학습과 병행하면서 탐구함으로써 「경계를 넘어선 보편성」을 탐구 과제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9) 石川照子, 「日本社会の常識を問い直す日本史授業-制度としての「天皇」を手がかりに-」, 第59回全国社会科教育学会全国研究大会発表資料, 2010.

< 参 考 文 献 >

<내셔널·아이덴티티와 역사교육에 관한 것>

- 岡本智周, 『国民史の変貌 日本歴史教科書とグローバル時代のナショナリズム』, 日本評論社, 2001.
- ましこひでのり, 『イデオロギーとしての「日本」 「国語」 「日本史」の知識社会学』, 三元社, 2003.
- 原田編仁編著, 『「国民的アイデンティティ」をめぐる論点・争点と授業づくり』, 明治図書, 2006.

<국민 형성에 관한 것>

- 烏海路, 『日本の近代 国民国家の形成・発展と挫折』, 放送大学教育振興会, 1996.
- 西川長夫, 『国民国家の射程 あるいは<国民>という怪物について』, 柏書房, 1998.
- 牧原憲夫, 『客分と国民のあいだ 近代民衆の政治意識』, 吉川弘文館, 1998.
- 谷川裕, 『国民国家とナショナリズム』, 山川出版社, 1999.
- 歴史学研究会編, 『戦後歴史学再考 「国民史」を超えて』, 青木書店, 2000.
- 塩川伸明, 『民族とネイション-ナショナリズムという疑問』, 岩波書店, 2008.
- 岩波書店編集部編, 『日本の近現代史をどう見るか』, 岩波書店, 2010.

<수업 내용 개발에 관한 것>

- 小森陽一·成田隆一編著, 『日露戦争スタディーズ』, 紀伊國屋書店, 2004.
- 牧原憲夫, 『民権と憲法』, 岩波書店, 2006.
- 佐谷眞木人, 『日清戦争 「国民」の誕生』, 講談社, 2009.
- 片山慶路, 『日露戦争と新聞 「世界の中の日本」をどう論じたか』, 講談社, 2009.